

번호: PO-EP-041				
제 목	한국형 청소년 건강위해행동 감시체계 도구 개발과 이를 이용한 부산지역 청소년의 건강위해행동 실태조사 Development of a Tool for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(KYRBSS) and Current Status of Health Risk Behaviors of Adolescents in Busan city			
저 자 및 소 속	조은희1), 전진호2), 이종태2), 손혜숙2), 엄상화2) 1)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, 2)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Eun-Hi Cho1), Jin-Ho Chun2), Jong-Tae Lee2), Hae-Sook Sohn2), Sang-Hwa Urm2) 1) Busan Metropolitan City,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Division, 2) Inje University, School of Medicine,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			
분 야	역 학 [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]	발 표 자	발 표 형 식	포스터
<p>목적: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이들의 생활습관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위해행동 감시는 국가적 건강과제이다.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다 할 청소년 건강위해행동 감시 측정도구가 없다.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위해행동 감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, 이를 적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.</p> <p>방법: 연구는 도구 개발과 실태 조사의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. 먼저 선진국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건강위해행동 감시 도구인 YRBS (Youth Risk Behavior Survey), HBSC (Health Behaviour in School aged Children), GSHS (Global School-based student Health Survey) 등을 근거로 focus group과 예비조사(test-retest 포함)를 거쳐 크게 12영역의 총 110문항으로 구성되고, 평균 kappa 계수 69.2%의 신뢰도를 지닌 한국형 청소년 건강위해행동 감시도구(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Surveillance, KYRBSS)를 개발하였다. 실태 조사의 대상은 부산지역의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, 세 단계의 층화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 집단을 선정하였다.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부산시의 6개 교육청 관할 구역에서 인문계와 실업계, 남녀 분리와 공학 체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 1개교씩 총 47개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 당 2학년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8,960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. 조사 기간은 2004년 4월부터 4주간이었다. 자료 분석에는 EXCEL과 SPSS(ver 10.0)을 사용하였다.</p> <p>결과: 대상 청소년의 지난 1개월 동안 흡연 및 음주 경험율은 7.7% 및 27.4%였다. 전체의 32.9%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었으며, 23.8%가 자살 시도를 계획한 경험이 있었다. 28.4%가 지난 1년 동안 싸움에 가담한 경험이 있었으며, 9.9%에서 가출한 경험이 있었다. 12.7%가 지난 1년 동안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고 25.5%가 지난 일주일 동안 채소나 야채를 먹지 않았으며 20.2%는 지난 1년 동안 육식을 주로 하였다. 21.1%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, 24.9%가 하루 3시간 이상 TV를 시청하였고 21.5%가 하루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였다. 28.0%가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으며 오토바이를 탄 경험이 있는 경우의 76.9%,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경험이 있는 경우의 90.3%가 헬멧 등의 안전도구를 착용하지 않았다. 60.7%가 잇솔질을 하루 2번 이하로 하였으며, 80.8%는 1회 잇솔질시간이 3분 미만이었고, 52.6%는 잇솔질 방법이 회전식이 아니었다. 대상 청소년의 10.7%가 성경험이 있었으며, 44.9%는 성병이나 HIV/AIDS 교육을 받지 않았다.</p> <p>결론: 청소년의 건강위해행동 실태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특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, 연령이 증가할수록, 학업 성적이 나쁠수록 건강위해행동의 유병률이 높았다. 개발된 감시 도구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위해행동 특성을 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겠으며, 이러한 감시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, 청소년의 건강위해행동을 교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. 이 연구의 결과가 국가 보건정책 입안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.</p> <p>중심단어: 청소년, 건강위해행동, 감시체계, 한국형</p>				